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58호 | 발행인 : 우남희 | 발행일 : 2017년 6월 2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입양가정, 편견을 넘어 아동의 행복으로

I. 현황과 문제점

-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제12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함(5월 13일).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인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음.¹⁾
 - ▶ 과거에는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국내입양우선추진제 도입('07년) 등의 제도적 노력으로 인해 2016년 국내입양 546명(62.0%), 국외입양 334명(38.0%) 등 국내입양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5.8.; 2017.5.12.).²⁾
- 2011년 「입양특례법」의 개정(2012년 시행)은 아동입양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 내에서의 양육임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입양정책의 방향을 설정³⁾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짐.
 - ▶ 이로 인해 아동 출생 일주일 후부터 입양동아가 이루어지는 입양숙려제, 국내외 모든 입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가정법원허가제 등이 도입되었고, 양부모가 입양 전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양부모 자격이 강화되었음.
- 입양아동 권익 중심의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고 국내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다 해도 사회의 인식이나 문화가 변하지 않는다면, 아동은 입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될 것임.
 - ▶ 입양가정, 다문화, 미혼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성은 여전히 높지 않음(대한민국정부, 2016: 72).⁴⁾
 -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을 자녀로 삼고 양육하는 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입양아동이 비입양아동과 구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입양특례법」 개정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입양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우리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은 편이며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므로 입양아동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 입양아동을 중심으로(배윤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 2016)』에 기초함.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5.12.). 국내외 입양인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다!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5.8.).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5.12.). 국내외 입양인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법률 제11007호) 개정 이유.

4)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II. 입양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

입양부모들은 입양 결정 시부터 입양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우려하고 있음.

- 배윤진·김아름·송신영·권지성(2016)의 연구에서 입양부모 2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입양부모들은 입양 결정 시 방해 요인으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 ▶ 입양 결정 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우려는 2011년도 이전에 입양한 경우(18.2%)에 비해 2012년도 이후에 입양한 경우(29.7%)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친생자녀가 없는 경우는 28.8%로 친생자녀가 있는 경우(16.7%)에 비해 응답 비중이 높음.
 - ▶ 이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우리사회가 가진 혈연 중심의 사고방식이나 입양은 난임·불임 가정에서만 한다는 등의 편견을 특히 친생자녀가 없는 부모들이 크게 의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임(본 조사에서 친생자녀가 없는 가정은 53.7%임).

<표 1> 입양 결정 시 경험한 어려움

단위: %

부부간 의견불일치	가족 (부모) 반대	사회적 편견우려	경제적 이유	잘 키울 자신 없어서	친생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	출생 배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우려	기타	없음
6.6	12.5	23.2	10.3	13.2	2.6	6.3	2.9	22.4

주: 입양부모 2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배윤진 외(2016).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일반 성인 대상 사회조사결과에서도 입양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엿볼 수 있음.

- 이러한 입양에 대한 인식은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 2014년 사회조사⁵⁾에서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는 응답뿐만 아니라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문항(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 입양자녀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의 응답률이 2006년 이후 다소 증가하였음.
 - ▶ 2016년도에 실시한 동일 조사⁶⁾에서는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32.2%에 달함.

<표 2>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입양 필요성을 못 느낌	경제적 부담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음	입양자녀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음	친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	재산상속 때문에	기타
2006	58.1	24.6	4.6	7.4	4.3	-	-	1.0
2014	57.2	19.3	6.3	9.0	6.3	-	-	2.0
2016	42.9	16.8	4.1	3.4	-	32.2	0.5	0.2

주: 1)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19세 이상) 대상임. 2) 2016년에는 조사 문항이 바뀌었음.

자료: 통계청(2006, 2014, 2016). 보건·사회·복지-사회-사회조사-가족.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jsClick(2017.4.14. 인출).

5) 통계청(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보건·사회·복지-사회-사회조사-가족.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jsClick(2017.4.14. 인출).

6) 통계청(2016). 보건·사회·복지-사회-사회조사-가족.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jsClick(2017.4.14.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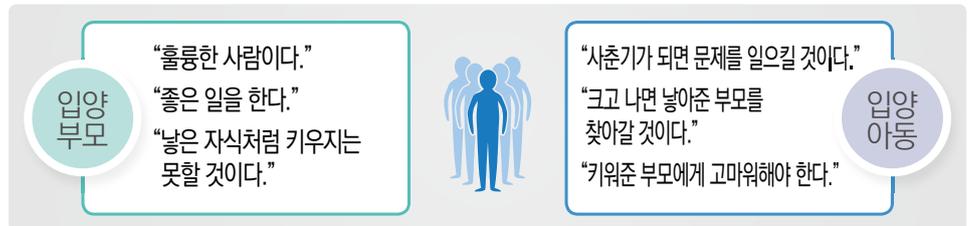
- ▶ 또한 일반인 5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용주·김한배(2010)⁷⁾의 연구에서는 국내입양의 문제점으로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족관(56.7%), 지나치게 선별적인 입양과 비밀입양(23.3%) 등을 꼽음.

Ⅲ. 입양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은 편견⁸⁾

입양가정에서는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를 경험하고 있음.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편견들은 아동이 성장하면서도 지속되고, 특히 학교에서 교사나 또래로부터 아동이 직접 마주하기도 함.

- 입양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28.7%).
 - ▶ 입양사실 공개 방법이나 입양사실로 인해 자녀가 삐뚤어지거나 성장하여 친생부모를 찾아봐 걱정하는 것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은 자녀연령이 증가하여도 유의하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친생자녀가 없는 부모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
- 편견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한 시선 외에도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에 대해 다양한 편견이 존재하며, 이중 잦대를 보이기도 함.
 - ▶ 입양부모에 대한 편견에는 ‘훌륭한/대단한/특별한 사람이다’, ‘좋은 일을 한다’와 같은 긍정적 인식과 ‘낳은 자식처럼 키우지는 못할 것이다’ 등의 부정적 인식이 모두 있음. 또한 주변인들은 입양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입양자녀에게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파양을 권유하여 입양자녀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드러내기도 함.
 - ▶ 입양아동에 대한 편견에는 ‘사춘기가 되면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입양사실을 알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크고 나면 낳아준 부모를 찾아갈 것이다’, ‘키워준 부모에게 잘 해야 한다/고마워해야 한다’ 등이 있음.



[그림 1]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의 내용

주: 입양가정 39사례를 면담한 결과임.

자료: 배윤진 외(2016).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 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은 아동이 성장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특히 학교에서 아동이 직접 경험하고 있음.
 - ▶ 입양자녀가 영유아기일 때는 주로 주변인의 시선으로부터 불편함을 겪으며, 자녀가 성장하여 학령기가 되면 학교의 교사들과 또래들로부터 더욱 더 다양한 사회적 편견을 마주함. 이는 아동의 학교적응이나 건강한 사회·정서발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 이러한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는 국외보다 국내 연구에서 더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공개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2000년 전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7) 정용주·김한배(2010). 일반국민의 입양인식과 입양정책의 과제.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26.

8) Ⅲ장은 상기 보고서의 입양부모 272명 대상 설문조사 및 입양가정 39사례 심층면담 결과임.

IV.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아동에게 혼란을 주거나 입양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용어의 변화를 통해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함.

건강한 입양가정의 모습은 입양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편견 극복의 첫 번째 방안이 되며, 공식적인 부모교육·상담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음.

입양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한 건강한 입양문화가 학교교육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사회에 확산되기를,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언어는 사고를 담고 있으므로 입양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변화가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임.
 - ▶ 예비입양부모가 아동을 처음 만날 때 사용하는 ‘선본다’는 표현은 아동중심이 아닌 성인중심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말이며, 대부분 입양부모가 입양기관에서 처음 정해진 아동을 자녀로 삼고 있어 실제와도 맞지 않으므로 이 용어의 사용은 지양되어야 하겠음.
 - ▶ 입양아동이 생(生)부모나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자 할 때,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대해 ‘뿌리 찾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아동에게 현재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뿌리가 없으며 자신의 근본은 찾아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어른들이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칫 아동에게 더욱 혼란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보다 적절한 언어의 사용에 대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람.
- 입양가정 스스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건강한 가족으로 기능함으로써 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바꿔나갈 수 있어야 함.
 - ▶ 이를 위해 입양가정에서 특히 부모 스스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없애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입양가정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에서 좀 더 강조되어 다루어져야 함.
 - ▶ 또한 부모교육 내용으로 이웃, 또래와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기술이나 사회관계에서의 대처 방안을 담아서 부모 스스로 역량을 기를 뿐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부모는 아동이 입양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갖도록 하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스스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대화기술, 놀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을 때 대처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함.
 - ▶ 현재는 자조모임을 통해 이러한 정보가 일부 공유되고 서로를 지지하고 있으나 자조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입양가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입양부모교육 등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그동안 남녀평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온 것처럼 학교 교육의 측면에서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실행되고 대중매체의 변화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건강한 입양문화가 확산되어야 함.
 - ▶ 교과서 등의 일반 학교교육 자료에서 입양가정도 출산한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정처럼 평범한 사례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즉, 입양을 특별하게 다루거나 입양여부로 누군가를 구분하는 관점은 지양되어야 함.
 - ▶ 사회 인식 형성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중매체에서 입양을 자극적인 소재로 사용하거나 입양가정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사건 중심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입양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일로만 비춰지거나 반대로 어두운 사건의 발생지로만 부각되어 전파되지 않아야 함.
- 이러한 인식 개선 노력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므로 다함께 주목하고 노력해야 할 것임.

배윤진 부연구위원 byj@kicce.re.kr